## 다시 푸는 경서

### 진심직설(眞心直說) ㉑

不傷苗稼 方敢撒手也 到此地步
불상묘가 방감살수야 도차지보
便不用牧童鞭繩 自然無傷苗稼 如道
편불용목동편승 자연무상묘가 여도
人得眞心後 先且用功保養
인득진심후 선차용공보양
有大力用 方可利生
유대역용 방가이생

이런 경지에 도달해야 목동이 채찍과 고삐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자연히 곡식을 해치지 않게 되듯이 도인 역시 진심을 터득한 뒤에도 우선 그 공부를 계속 보호하고 잘 길러서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어야 비로소 중생을 이롭게 할 수가 있는 것이다.

若驗此眞心時 先將平生所憎愛底境
약험차진심시 선장평생소증애저경
時時想在面前 如依前起憎愛心
시시상재면전 여의전기증애심
則道心未熟 若不生憎愛心 是道心
즉도심미숙 약불생증애심 시도심
熟也 雖然如此成熟
숙야 수연여차성숙
猶未是自然不起憎愛 又再驗心
유미시자연불기증애 우재험심
若遇憎愛境時 特然起憎愛心
약우증애경시 특연기증애심
令取憎愛境界 若心
영취증애경계 약심
不起 是心無碍 如牧童牧白牛
불기 시심무애 여로지백우
不傷苗稼也 古有呵佛罵祖者
불상묘가야 고유가불매조자
是與此心相應 今見參入宗門
시여차심상응 금견재입종문
未知道之遠近
미지도지원근
便學呵佛罵祖者 太早計也
편학가불매조자 태조계야

만약 이 진심을 시험해보려면 먼저 평소에 증오하거나 좋아했던 일이 때때로 자기 면전에 있다고 생각했을 때, 여전히 증오하거나 좋아하는 마음이 일어난다면 도의 마음이 성숙하지 못한 것이요, 만일 증오하거나 좋아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도의 마음이 성숙된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성숙된 것은 아직 증오와 좋아하는 생각이 저절로 일어나지 않는 것이 못된다. 그러므로 또다시 마음을 시험하되, 만약 증오나 좋아하는 경우를 만났을 때, 억지로라도 증오나 좋아하는 마음을 일으켜서 증오하거나 좋아하려는 그 경계를 취해보려고 해도 마음에서 그런 생각이 일어나지 않아야 비로소 마음은 걸림이 없어 마치 밖에 놓아두어도 흰 소(큰 지혜를 비유함)가 곡식밭을 해치지 않는 것과 같이 되는 것이다. 옛날에 부처를 꾸짖고 조사를 꾸짖던 사람들은 바로 이런 마음과 상응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보면 겨우 종문(宗門)에 들어온 이가 도의 원근도 잘 알지 못하면서 부처를 꾸짖고 조사를 꾸짖는 것만 배운다는 것은 너무나 이른 속단이다."

14. 진심은 앎이 없다(眞心無知)

或曰眞心與妄心 對境時
혹왈진심여망심 대경시
如何辨別眞妄耶
여하변별진망야
曰妄心對境 有知而知 於順違境
왈망심대경 유지이지 어순위경
起貪嗔心 又於中容境 起癡心也
기탐진심 우어중용경 기치심야
既於境上 起貪嗔癡三毒 足見是妄心
기어경상 기탐진치삼독 족견시망심
也 祖師云 逆順相爭 是爲心病
야 조사운 역순상쟁 시위심병
故知對於可不可者 是妄心也
고지대어가불가자 시망심야

물었다. "진심과 망심이 경계를 대했을 때, 이것이 진심인지 망심인지 어떻게 분별합니까."

대답했다. "망심은 어떤 경계를 대하면 안다는 생각으로 알므로 순경(順境)이나 역경(逆境)을 만나면 탐심(貪心)과 진심(嗔心)을 일으킨다. 또 그 중간의 경계에서는 치심(癡心)을 일으킨다. 이미 경계를 만나 탐, 진, 치 삼독을 일으켰다면 이는 망심임을 알 수 있다. 조사의 말씀에 「역경이다, 순경이다 하며 다투는 것은 마음의 병이 된다」하였다. 그러므로 옳다, 그르다 하며 대립시키는 것이 바로 망심임을 알아야 한다.

김원각〈시인 · 역경위원〉

## '옳다' '그르다' 대립시키는 것이 바로 망심임을 알아야 한다

## 큰스님 수행한담

# "의심이 없으면

## 진제스님 〈해운정사 조실〉

약력
· 1934년 경남 남해 출생
· 1954년 석우스님을 은사로 득도 출가.
· 1967년 향곡선사로부터 인가 받음.
· 1971년 부산 해운정사 창건
· 1991년 선학원 이사장, 선학원 중앙 조실 역임.
· 1994년~현재 팔공산 동화사 금당선원 조실.

부처님의 진리는 깊고 깊어서 아는 자가 아니면 중생의 안목을 점검할 수 없고 바른 지도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스승없이 깨달은 자는 천마외도(天魔外道)라고 못박아 놓았습니다. 광변무변한 진리의 세계를 혼자 수도해서 알았다고 하는 것은 망념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처님의 살림살이를 일상 중에 정진해서 깨달은 자는 응당 밝은 선지식을 찾아가서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저 또한 출가 이후 큰 스님들로부터 공부를 점검받았습니다.

저는 1954년 정월, 21살 되던 해 출가를 했습니다. 동네에서 십 리쯤 떨어진 곳에 있던 해관암을 우연히 갔다가 설석우 선사를 친견한 것이 인연이 됐습니다.

석우 선사는 나를 보시더니 내 나이와 기타 이것저것을 물으신 후 '세상생활도 좋지만 그보다 더 값진 생활이 있으니 그대가 한번 해 보지 않겠는가?'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값진 생활이 무엇인가를 여쭈었더니 범부가 위대한 부처되는 법이 있네. 이 세상에 한 번 태어나지 않은 셈치고 수행의 길을 가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게 아니겠어요. 그래 그 길로 스님들의 사는 모습을 유심히 지켜본 후 환희심을 느껴 출가를 했습니다.

출가 이후에는 큰스님 시봉에다 공양주 소임 그리고 나무를 하고 채소를 가꾸는 등 해야 할 일들로 하루 종일 눈코 뜰 새없이 보냈습니다. 그렇게 6, 7개월이 지났을 겁니다. 하안거 해제일에 선방에 다니며 10여 년간 수행해 오던 선객(禪客)들이 해제하고서 석우 선사께 인사드리러 왔다가 마침 너댓 분이 한 자리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석우 선사께서는, "오늘 내가 자네들에게 한 가지 물을 터이니 대답하여 보게. 옛날 중국의 삼한 시절에는 글자 운자(韻字) 하나를 잘 놓음으로 인해서 과거에 급제하던 때가 있었네. 이것은 그 당시 시험에 나왔던 문제인데, '일출동방대소(日出東方大笑) 즉, 해가 동쪽에 떠올라 크게 웃는 모습이 어떠하더라.' 하는 이 글귀에 운자 하나를 놓아 보게"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당시에 어떤 사람은 나 '아(我)' 자를 놓아서 재상에 등용되었는데, 자네들은 어떤 자를 놓아 보겠는가?"라고 덧붙이셨어요.

근데 선객들 중에는 대답하는 이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때 선사께서는 신출내기 행자였던 저를 지목하시더니 '한마디 일러 보라' 하시지 않겠습니까.

당황스럽기는 했지만 대뜸 "없을 무(無)자를 놓겠습니다"했죠. 해가 동쪽 하늘에 떠올라 밝은 빛으로 온 세상을 비추지만, 비추는 그 모습에는 호리(豪釐)의 상(相)도 없다는 뜻으로 '무(無)' 자를 놓았던 것이지요. 그러자 선사께서는 '행자가 장차 큰 그릇이 될 것이다'며 아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 후 큰 스님께 지도를 받으며 정진에 정진을 거듭했고, 그 덕분에 경허-혜월-운봉-향곡스님으로부터 이어져 오는 선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향곡 선사께 법을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 인연 이야기도 재미있습니다.

내가 막 중이 된 뒤 석우 선사 밑에서 4년간 공부를 한 후 선산 도리사에서 공부를 하던 중 '망지견(妄知見)'이 나서 월내 관음사 향곡 선사를 찾아가 법을 물었습니다. 그게 인연이 시작된 셈입니다. 당시 내가 법을 물으니까 스님이 모두 아니라고 그러셔요. 그래서 다시 오대산 상원사에 들어가 공부를 계속했습니다.

## 어느 누구나 심안 열리면 모든 불조가 설한 법문이 한 꼬챙이에 다 꿰이는 법

거기서 겨울 안거를 하던 어느 날 그날은 유난히 날이 따뜻했었는데 문득 스스로 반성하는 마음이 생기지 뭣입까. '내가 이렇게 공부를 해서는 안되겠다. 백지장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향곡 선사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향곡 선사께 사생결단 공부를 하겠다고 말씀드렸더니 선사께서 화두 '향엄상수화'를 주셨습니다. '향엄상수화'는 한 사나이가 높은 나무에 올라가 입으로 가지를 문채 매달려 있는데 지나가던 사람이 달마대사가 중국에 온 뜻을 물으니, 대답을 하면 떨어져 죽을 것이고 대답을 안하면 모르는게 되니 어찌해야 하는가라는 내용의 화두입니다.

이 화두를 2년간 참구하여 결국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향곡선사의 수승제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1967년 하안거 해제 법회때 묘관음사 법당에서 향곡선사와 법거량이 있었습니다. 향곡 선사께서 상당(上堂)하시여 묵좌(默坐)하시고 계시는데 제가 여쭈었습니다.

"불조(佛祖)께서 아신 곳은 여쭙지 아니하거니와, 불조께서 아시지 못한 곳을 스님께서 일러 주십시오."

"구구는 팔십일이니라."

이에 제가 "그것은 불조께서 다 아신 곳입니다" 하니, 선사께서 "육육은 삼십육이니라"라고 하셨습니다. 그 뒤 제가 선사께 예배드리고 물러가자, 선사께서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내려오셔서는 조실방으로 가셨습니다.

다음날 제가 다시 여쭈었습니다. "불안(佛眼)과 혜안(慧眼)은 여쭙지 아니하거니와, 어떤 것이 납승(衲僧)의 안목입니까?"

선사께서 이르기를,

"비구니 노릇은 원래 여자가 하는 것이니라(師姑元來女人做)"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에야 비로소 큰스님을 친견하였습니다"고 말씀드렸죠. 그랬더니 선사께서 "네가 어느 곳에서 나를 보았느냐"고 또 물으시는게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건강식품 '불로화정' 특허

시연스님이 흑염자(검은깨)와 감식초 등 10여종의 첨가물을 7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불로화정'을 상품화하면서 특허를 출원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스님은 이미 10년전에 은사스님으로부터 전수 받아 개발한 불로화정을 그동안 비매품으로 사용해 오다 최근 상용화를 위해 특허를 출원하고 시장화보에 나섰다.

현대인에게 활력과 윤기를 주는 영양물질의 보고, 불로화정(不老化精)은 영험함은 직접 몸속으로 느껴보십시오. 생명의 근원, 간이 튼튼해야 신체가 건강합니다. 인체의 뿌리, 위가 튼튼해야 몸이 좋아집니다.

· 본사 생산제품 ·
솔선식(2개월 ₩500,000), 솔효소정액(2월 ₩500,000)
익수영진고 (2개월 ₩1,000,000), 치신왕기환(3개월 ₩500,000)

불로화정(不老化精)

(건강보조식품허가)

오랜세월동안 비전된 방법으로 만든 「不老化精」은 원래 산중 사찰의 스님들을 위하여 흑염자(검은깨)와 감식초외에 10여종의 첨가물을 7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으로 40여년전 시연스님의 은사 큰스님으로부터 전수받은 것입니다.

「不老化精」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모든 질병의 치료와 예방이 가능하고 암을 억제시키며 특히 노인은 발에 땀이 날 정도로 건강이 호전되고 노화도 지연되며 2개월만 복용하면 다이어트를 안하고 마음껏 먹어도 비만이 안되며, 위염, 소화불량, 설사 등 모든 위장질환이 치료되고 복부에 주름살이 펴지며 음주를 많이 해도 취하지 않고 눈이 밝아지며 피로를 모르는 건강한 몸을 만들어 줍니다

▣가 격 : 정가 칠십만원(7년간 발효식품, 2개월분)을 마지막분 선착순 2,000명에게 오십만원에 할인하여 드립니다
▣입금구좌 : 대구은행 033-07-172508(대구여래한방)

참깨서 노화억제·암예방 성분 대량추출

농진청 세계 최초로

참깨에서 노화억제 및 암예방효과가 입증된 「세사미놀」 성분을 대량다

세사미놀은 노화를 막고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인정돼 각광을 받고 있는 새로운 기능성을 물질로 지금까

〈TV에서 성인병, 난치병 특효 설명〉

如來治身自然食品會社
문의전화 : (053)655-2227
(011)808-8880

자연건강식품을 먹고 난치병을 고치게 되어 드리는 감사의 말씀

산승(山僧)은 비구니로 60여년 수도생활을 하고 있는 여든의 늙은이로 현재 대구 반야사 주지로서 어린 장애자를 양육, 보호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20여년간 신경통, 고혈압, 위장질환, 몸이 붓는 증세(浮腫)로 고통을 받던 중, 천일지장기도가 끝나는 날 꿈속에서 뵈온 스님의 얼굴과 똑같은 시연스님을 만나게 되어 한번만 침을 맞은 후 자연건강식품 「불로화정(不老化精)을 복용하고 모든 난치병이 완쾌되었으므로 그 너무나 큰 고마움의 말씀을 글로써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대구시 반야사 (전화 053-614-7935) 주지 김 혜명 합장

저는 20여년의 수도생활을 하고 있는 52세의 비구니로서 충북 제천시 청해사 주지로 있습니다. 저는 신장병, 골다공증, 위장질환, 호흡곤란 등의 만성질환을 앓는 병주머니의 몸이었으나 우리 농산물로 만든 경옥고(경옥고) 같이 생긴 「익수영진고(익수영진고)」를 복용하고 건강을 회복하였으며 몇 가지 병으로 고생하던 모친과 여동생도 같이 복용한 후 건강한 몸을 되찾게 되어 그 말할 수 없는 감사의 마음을 짧은 글로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여깁니다.

충북 제천시 청해사(전화 0443-646-7371) 주지 박 법륜 합장

저는 64세의 나이 많은 여성으로 여러 가지 난치병 때문에 병약하여 많은 고생을 하였으나 「不老化精」,「솔선식(松仙食)」,「솔효소정액(松酵素精液)」,「익수영진고」,「치신왕기환(治身旺氣丸)」 등 자연건강식품을 복용한 후 병을 고치고 생기 넘치는 몸으로 생활하게 되어 그 감사한 말씀을 전해 드리게 된 것을 큰 자랑이라고 믿는 바입니다.

대구 거주(전화 011-545-5550) 최 청정심 올림